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분석*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the Fatherhood Programs Provided in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이 현 아**

Research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y, Daegu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Lee, Hyun Ah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demand and supply of programs of parenthood programs for fathers are increasing with changes in the image of male parents. Under this backdrop, a necessary requirement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father programs that are spearheaded by governments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m to determine if they actually meet the needs of fathers. This study conducted such an examination for the fatherhood programs that were provided as a mandatory public service by the Healthy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2017. To this end, the research analyzed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data on 776 projects, including 1293 programs that were required for provision in 101 integrated centers nationwide. The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fatherhood programs differed according to the project area, the location of a center,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the methods of proceeding, the participation unit (whether an entire family or an individual family memb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number of sessions. Overall,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higher in “fathers meetings” (under the community domain) than “support for the father role” (under the family relationship domain).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perio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was high in the 4th quarter of implementation.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was also higher for culturally based initiatives than education-oriented programs.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the participation unit was the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4132).

** 주저자, 교신저자: 이현아(leehyun@gmail.com)

family than when such unit was the individual. The small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Finally, the number of sessions was deemed satisfactory when it was completed in more than four ses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the basis of effective use of the government budget by analyzing the status and satisfaction of the fatherhood program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tegration of the Healthy Familie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Key Words : 아버지참여 프로그램(Fatherhood program), 아버지 역할 지원(Father role support), 아버지 모임(Father meeting),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ealthy Familie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Fatherhood program satisfaction)

I. 서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워라벨(work and life balace)’이라는 신조어로 나타난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이 가능한지를 물어본다는 응답이 55.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연봉(28.6%), 고용 안정성(27.7%), 조직문화 및 복지제도(21.8%), 적성에 맞는 직무(20.4%), 출·퇴근의 근접성 및 용이성(19.5)%, 향후 성장 가능성(9.2%) 등 순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8). 이처럼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버지 역할도 ‘일 중심’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아버지세대는 이전세대인 아버지를 통해 전통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받았으나, 자녀양육과 가사 등 가정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아버지 역할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이현아·박철·김선미, 2017). 바람직한 아버지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역할수행의 불일치, 생계부양자와 돌봄제공자 역할수행으로 인한 긴장, 그리고 자녀에 대한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양소남, 2013)이 현재 우리 아버지들의 현실이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을 다룬 연구(김혜영 외, 2008; 이숙현·권영인, 2009; 송혜림, 2012)는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에서 경험하는 역

할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갈등이 큰 것은 여전히 일중심의 사회구조가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시간근로문화가 만연한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아버지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15년 2,071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다(고용노동부, 2017).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692시간에 비해 약 380시간 많은 것으로 주당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9주에서 10주 정도 더 일한 셈이다.

아버지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정책적으로도 반영되고 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양립을 남성과 기업이 함께 실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남성과 기업의 참여를 기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남성대상 맞춤교육,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자조모임활성화, 남성 일가정양립문화 조성 등을 통해 남성의 일가정양립이 강조되고 있다(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이와 같은 아버지참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수요 증가는 실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양적 증가로 체감할 수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공적인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6년 기준 전국 151개소로 확대되었

고, 2016년 이후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통합추진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통합수행하고 있다.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16)에 의하면, ‘남성대상교육’ 연간 20시간 이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연간 2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남성대상교육’은 일가정양립 및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포함하는 것이고,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은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유아나 초등학교 돌봄프로그램, 아이돌봄 및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외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품앗이, 가족봉사단 활동, 가족의 날 행사와 같은 아버지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남성대상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015년 79,575명으로 2010년 37,249명의 두 배가 넘어 매년 증가추세²⁾에 있고, 센터 당 평균회기수도 15회에 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한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사업은 2017년 현재 전국 101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역할 지원을 위한 아버지교육과 아버지 자조모임 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달체계를 통해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만족도 분석은 정부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 작업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아버지참여와 아버지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

불어 아버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김정희, 1999; 김진희·정희연, 2005; 송혜림 외, 2010; 서은주, 2012; 권혜진, 2013; 권기남, 2014; 송혜림·이정희, 2014; 박필레·김성길, 2014; 손순복, 2016). 특히 2009년 이후 프로그램 개발·실시·효과 연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나, 놀이치료 및 활동프로그램, 코칭교육, PET 등 민간주도 아버지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며, 정부주도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성은, 2017).

이에 본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수사업인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버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은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아버지대상 사업은 전국단위로 보급되어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II. 선행연구고찰

1. 공공부문의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현황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교육이다. 아버지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의 기관에서 부모교육의 한 형태로 아버지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 산

1)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통합 추진에 따라, 2016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되었던 기관들이 점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어 2017년 현재 101개 통합센터가 운영중임(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2) 남성대상교육 연간참여인원은 2010년 37,249명, 2011년 49,063명, 2012년 52,663명, 2013년 59,084명, 2014년 62,724명, 2015년 79,575명으로 집계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하 학부모지원센터가 공공부분에서 대표적인 부모교육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다(표 1). 2015년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참여인원은 약 18만 명, 학부모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약 58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밖에 대학 연구소나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부모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활성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모교육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부모교육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제고, 부모교육 추진체계 정비 등으로 체계화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후속작업으로 2017년 부모교육매뉴얼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총12권의 부모교육매뉴얼을 보급한 바 있고, 그 중 제 10권으로 아버지대상 부모교육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대상 부모교육프로그램 매뉴얼은 5가지 주제(산나는 아빠, 함께하는 아빠, 놀이하는 아빠, 통하는 아빠, 키우는 아빠)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자세한 매뉴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표준매뉴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아버지의 변화와 부성에 대한 이해,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여, 구체적인 아버지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계획, 놀이, 가족과의 소통, 아버지의 마음가짐과 태도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

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다양성 확보, 다문화가족의 적응역량 증가, 다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증대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고자, 2014년 통합서비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9개소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78개소에서 본격적인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2017년 현재 전국 101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확대되었다. 통합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기본 사업은 다음 <표 2>와 같다. 부모역할지원, 아버지역할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아버지모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등 9개 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아버지역할 지원을 위한 아버지교육과 아버지자조모임 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가족관계 영역은 부모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 가족의사소통, 가족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영역이므로, 가족관계 영역내 아버지역할지원은 일가정양립의 중요성 및 가정 내 아버지역할지원, 자녀와의 상호작용방법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포함해야 하며, 연간 20시간 이상(군지역의 경우 10시간 이상)

<표 1> 부처별 부모교육 현황

구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교육청)
교육대상	모든부모(예비부모포함)	영유아기 자녀부모	학부모
전달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 (15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88개소)	학부모지원센터 (93개소)
교육내용	자녀의 연령단계별 부모역할 및 부모와 자녀간 관계 지원 등	영유아기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방법 등	유아기, 학령기 자녀의 학습, 진로지도 및 부모역할 등

*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표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내용

사업영역	기본사업	비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노년기 부부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부부갈등 해결지원, 이혼위기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긴급돌봄지원, 자녀돌봄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서비스	교육, 상담(정보제공 + 초기상담 → 전문 상담) 돌봄미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아버지모임,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여성가족부(2017).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아버지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돌봄 영역은 가족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 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가족유형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역으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이 필수사업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자녀돌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빠의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토요 돌봄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가족생활 영역은 가족특성에 따른 고충상담, 생활정보제공, 초기정착 지원 등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특별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지만, 별도 예산으로 추진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영역인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다문화인식개선 등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중 아버지모임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필수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버지모임은 육아 및 가정생활에 적극적인 아빠들의 자조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는 2016년 본격화된 센터통합에 따라 2017

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필수사업인 아버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동향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즉,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거나(김진희·정희연, 2005; 송혜림·이정희, 2014; 손순복, 2016; 홍길희·황정해, 2006),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김정희, 1999; 송혜림 외, 2010; 박필레·김성길, 2014; 홍길희·황정해, 2007),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권기남, 2014; 강기정·이윤정, 2010)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질적인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아버지교육 참여자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권혜진, 2013; 이현아 외, 2017) 등 2000년대 들어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Lamb(2004)과 Parke(2000)과 같

은 학자들이 아버지참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아버지참여 실천을 돕는 저서들(Brott, 2005, 2007)도 다수 발간되어 있다. 또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동향분석이나 메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도 다수 있다(Bronte-Tinkew, Burkhauser, & Metz, 2012; Fagan & Kaufman, 2015; Holmes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부모교육의 연구동향분석이 다수 이루어졌지만(조경란·함경애·천성문, 2012; 이재립 외, 2013; 김혜경, 2014; 이정주·이종연, 2014) 아버지대상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조경란 외(2012)의 연구에서도 전체 100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중 2%(2편)만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이재립 외(2013)의 연구는 분석대상이 된 총 41편의 연구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4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으로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정주와 이종연(2014)에서는 부모교육의 교육대상이 부모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한 논문이 137편(36%),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97편(52%),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3편(3%)으로 아버지대상 부모교육이 전체 부모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아버지 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는 정책적 결과로도 이어져, 아버지역할지원을 위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이현아 외, 2017), 최근 정부의 지원금으로 개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현황을 분석한 김길숙(2017)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족특성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17종 중 5종이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일 정도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김성은(2017)의 연구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아버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89편을 분석하였는데,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의 연구 유형은 프로그램 요구도조사, 기존프

로그램 실시 및 효과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프로그램개발, 실시 및 효과 검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는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실시과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이고, 기존 프로그램 실시효과연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말하며,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지만 실행하거나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은 연구이며, 프로그램 개발·실시·효과 연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후 효과성까지 검증한 연구를 의미한다(이정주·이종연, 2014). 김성은(2017)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전체 34.8%, 요구도 조사가 24.7%, 기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프로그램 개발·실시·효과 연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나, 놀이치료 및 활동프로그램, 코칭교육, PET 등 민간주도 아버지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어, 정부주도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가 부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정부주도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진행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만족도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기존 연구들이 민간주도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 효과검증에 집중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로 실시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을 전국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참여자들이 평가한 만족도에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획에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3.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요인 분석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아버지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재림 외(2013)은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자녀취학 여부(미취학 vs. 취학), 교육인원수(15명 이하 vs. 16명 이상), 교육대상(어머니 vs. 부모), 프로그램 회기 수(8회기 이하 vs. 9회기 이상), 집단특성(일반집단 vs. 특수집단)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조경란 외(2013)은 부모교육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한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집단크기, 총시행 회기수, 회기당 시행시간, 피교육생 자녀특성, 피교육생 참여유형, 자녀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성은(2017)은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의 회기수, 회기당 시간 및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프로그램 회기 수는 6-10회기가 50%로 가장 많고, 1-5회기가 35.4%를 차지하여 10회기 이하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고, 회기당 시간은 61분-120분을 도입한 프로그램이 대다수로 나타나 2시간이하의 프로그램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참여인원은 7명이하와 31명 이상이 참여한 연구가 2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아버지교육은 소규모 혹은 대규모로 실시되었다고 하였다(김성은, 20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 부모교육과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유형, 참여형태, 진행시간, 참여인원, 실시회기 수, 자녀특성 등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버지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반으로 실제 이러한 요인들이 프로그램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필수사업인 아버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사업실적 보고자료를 받아, 이를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101개 통합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진행된 아버지대상 프로그

램 1293개중 만족도자료가 포함된 776개 사업의 실적 데이터이다. 필수사업은 앞서 선행연구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가족관계사업 영역의 아버지역할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영역의 아버지모임이다. 두 가지 필수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자료의 항목으로는 지역, 진행시기, 프로그램명, 참여형태, 진행방법, 진행시간, 참가자수, 실시횟수,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센터가 소재한 지역은 시군구로 분류하여 코딩하였으며, 진행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기록된 것을 분기별로 나누어 4분기로 코딩하였다. 참여형태는 개인과 가족으로 나뉘는데, 회귀분석을 위해 개인을 0, 가족을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사업영역은 필수사업인 아버지역할지원과 아버지모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위해 아버지역할지원을 0으로 아버지모임을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프로그램 진행방법은 교육과 문화, 정보제공, 상담, 회의 등으로 보고된 것을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교육과 문화, 그리고 기타의 3가지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추후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진행방법인 교육을 기준으로 2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행시간은 분단위로 조사된 것을 2시간이하, 2-4시간, 4-8시간, 8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추후 회귀분석에서는 분단위로 투입하여 연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참가자수는 남녀 및 비구분으로 조사된 것을 모두 합하여 총인원수로 계산하고, 10명이하, 11-20명, 21-40명, 41명이상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회귀분석에서는 참가인원을 그대로 연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실시회기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회수로 조사되어, 1회기, 2-3회기, 4회기 이상의 3집단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1회기를 기준으로 2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투입하였다. 마지막 종속변수로 사용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각 센터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17)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조사한 만족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사업안내자료에 의하면, 만족도 조사는 다음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명시되어있다. (1. 프로그램/상담 내용은 내 가족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2. 강사(진행자)/상담자는 프로그램/상담을 잘 진행하였다. 3. 프로그램/상담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 프로그램/상담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5. 프로그램/상담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6.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상담 이용을 권하고 싶다).

분석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일반적 현황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버지프로그램은 필수사업으로 지정된 두 가지 영역으로 가족관계 영역의 아버지역할지원 사업이 전체 63.8%로 대다수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아버지모임 사업이 36.2%로 전체 1/3정도를 차지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은 소재지에 따라 시 39.8%, 구 34.9%, 군 25.3% 순으로 분포했고, 진행시기에 따라 4분기 35.2%, 2분기 29.4%, 3분기 28%, 1분기 7.5%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은 교육의 형태가 57.2%로 과반수를 넘었고, 문화의 형태가 38%로 뒤를 이었다. 기타 정보제공이나 상담, 회의 등은 5% 미만이었다. 참여형태는 개인이 65.7%로 2/3 가량되며,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형태는 34.4%로 1/3정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2시간 이하가 55%로 절반정도가 2시간 이하로 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 2-4시간이하가 25% 정도, 4시간이 넘는 장시간 프로그램이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은 10명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가 27.7%로 가장 많았고, 11-20명이 22.8%, 20-40명이 24.6%, 40명이 넘는 경우가 24.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명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가 반반의 비율로 집계되었다. 실시회기수는 1회기로 진행되는

〈표 3〉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일반적 현황

	구 분	프로그램수 빈도(N)	비중(%)
사업영역	가족관계(아버지역할지원)	495	63.8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아버지모임)	281	36.2
소재지	시	309	39.8
	군	196	25.3
	구	271	34.9
진행시기	1분기(1월-3월)	58	7.5
	2분기(4월-6월)	228	29.4
	3분기(7월-9월)	217	28.0
	4분기(10월-12월)	273	35.2
진행방법	교육	444	57.2
	문화	295	38.0
	기타(정보제공, 상담, 회의)	37	4.7
참여형태	개인	510	65.7
	가족	266	34.3
참여시간	2시간이하	428	55.2
	2-4시간이하	197	25.4
	4-8시간이하	102	13.1
	8시간초과	49	6.3
참여인원	10명이하	215	27.7
	11-20명이하	177	22.8
	21-40명이하	191	24.6
	41명이상	193	24.9
실시회기	1회기	509	65.6
	2-3회기	208	26.8
	4회기 이상	59	7.6
전체		776	100.0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3회기로 26.8%를 차지하고, 4회기 이상은 7.6%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1회기로 그치며, 다회기인 경우에도 2-3회기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방법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T-test, Oneway-ANOVA, 교차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IV. 연구결과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현황과 만족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은 필수사업인 가족관계영역의 아버지역할지원사업과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아버지모임 사업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 보았다. 〈표 4〉에 보면 사업영역에 따라 센터소재

지, 진행시기, 진행방법, 참여형태, 참여시간, 참여인원, 실시회기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사업영역은 소재지, 진행방법, 참여시간, 인원, 실시회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센터의 소재지가 ‘시’나 ‘군’인 경우 ‘구’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아버지모임사업의 비중이 높았고, ‘구’인 경우 아버지 역할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X^2=20.37$, $p<.001$). 진행시기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진행방법은 아버지역할지원사업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

모임사업은 문화나 기타(정보제공, 상담, 회의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X^2=197.29$, $p<.001$). 참여형태가 개인단위인지 가족단위인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참여시간은 아버지역할 지원사업의 경우 2-4시간이하이거나 4-8시간인 경우가 많고, 아버지모임사업은 2시간이하이거나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X^2=12.74$, $p<.01$). 참여인원은 아버지역할지원사업은 21-40명 이하와 41명이상인 경우가 80%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아버지모임은 10명이하인 경우가 70.2%로 매우 높고 11-20명인 경우도 40%로 상대적으로

〈표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

	구분	아버지역할지원 N(%)	아버지모임 N(%)	전체 N(%)	유의도 (chi-square)
소재지	시	185(59.9)	123(40.1%)	309(100.0)	20.37***
	군	109(55.6)	87(44.4%)	196(100.0)	
	구	201(74.2)	70(25.8%)	271(100.0)	
진행시기	1분기	33(56.9)	25(43.1)	58(100.0)	1.64
	2분기	149(65.4)	79(34.6)	228(100.0)	
	3분기	141(65.0)	76(35.0)	217(100.0)	
	4분기	172(64.0)	101(37.0)	273(100.0)	
진행방법	교육	374(84.2)	70(15.8)	444(100.0)	197.29***
	문화	116(39.3)	179(60.7)	295(100.0)	
	기타(정보제공, 상담, 회의 등)	5(13.5)	32(86.5)	37(100.0)	
참여형태	개인	330(64.7)	180(35.3)	510(100.0)	.542
	가족	165(62.0)	101(38.0)	266(100.0)	
참여시간	2시간이하	254(59.3)	174(40.7)	428(100.0)	12.74**
	2-4시간이하	134(68.0)	63(32.0)	197(100.0)	
	4-8시간이하	78(76.5)	24(23.5)	102(100.0)	
	8시간초과	29(59.2)	20(40.8)	49(100.0)	
	10명이하	64(29.8)	151(70.2)	215(100.0)	
참여인원	11-20명이하	105(59.3)	72(40.7)	177(100.0)	183.77***
	21-40명이하	159(83.2)	32(16.8)	191(100.0)	
	41명이상	167(86.5)	26(13.5)	193(100.0)	
실시회기	1회기	287(56.4)	222(43.6)	509(100.0)	35.93***
	2-3회기	165(79.3)	43(20.7)	208(100.0)	
	4회기 이상	43(72.9)	16(27.1)	59(100.0)	
전체N(%)		495(63.8)	281(36.2)	776(100.0)	

* $p<0.05$, ** $p<0.01$, *** $p<0.001$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X^2=183.77, p<.001$). 실시회기 수는 아버지역할지원사업은 주로 2-3회기나 4회기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모임은 상대적으로 1회기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X^2=35.93, p<.001$). 이상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역할지원사업은 주로 '구' 소재지 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 2시간에서 8시간이하로 20명 이상 대규모인원을 대상으로 2회기 이상 다회기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 아버지모임사업은 '시'나 '군' 소재지 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이나 기타 정보제공이나 상담, 회의 형태로 2시간이하의 단시간이거나 8시간이상의 종일

프로그램으로 10명이하의 소규모 형태로 1회의 단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소재지와 프로그램 특성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시간을 제외한 모든 기준에 따라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센터의 소재지, 진행시기, 사업영역, 진행방법, 참여형태, 참여인원, 실시회기 수에 따라 프로그램의 만족도 수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센터의 소재지가 구인 경우보다 시나 군인 경우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F \text{ value}=5.14, p<.01$). 진행시기

<표 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구분	프로그램수(%)	만족도	유의도 (F값 또는 T값)
사업영역	아버지역할지원	495(63.8)	4.70	8.45***
	아버지모임	281(36.2)	4.82	
소재지	시	309(39.8)	4.76	5.14**
	군	196(25.3)	4.76	
	구	271(34.9)	4.71	
진행시기	1분기	58(7.5)	4.70	8.29***
	2분기	228(29.4)	4.72	
	3분기	217(28.0)	4.72	
	4분기	273(35.2)	4.79	
진행방법	교육	444(57.2)	4.70	26.15***
	문화	295(38.0)	4.81	
	기타(정보제공, 상담, 회의 등)	37(4.7)	4.80	
참여형태	개인	510(65.7)	4.73	3.41**
	가족	266(34.3)	4.78	
참여시간	2시간이하	428(55.2)	4.75	.447
	2-4시간이하	197(25.4)	4.73	
	4-8시간이하	102(13.1)	4.75	
	8시간초과	49(6.3)	4.75	
참여인원	10명이하	215(27.7)	4.83	23.21***
	11-20명이하	177(22.8)	4.75	
	21-40명이하	191(24.6)	4.72	
	41명이상	193(24.9)	4.68	
실시회기	1회기	509(65.6)	4.75	4.45*
	2-3회기	208(26.8)	4.71	
	4회기 이상	59(7.6)	4.75	

* $p < 0.05$, ** $p < 0.01$, *** $p < 0.001$

에 따라서는 1분기보다는 4분기로 갈수록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져 4분기에 진행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F value=8.29, p<.001). 사업영역에 따라서는 아버지역할지원에 대한 만족도(4.7점)보다는 아버지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4.82점으로 더 높았다(T value=8.45, p<.001). 진행방법은 교육보다는 문화나 기타(정보제공, 상담, 회의 등)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value=26.15, p<.001). 참여형태는 개인단위 보다는 가족단위로 진행된 경우에 만족도가 조금 높았다(T value=3.41, p<.01). 참여인원에 따라서는 인원이 적을수록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져 41명이상 대규모인 경우 4.68점으로 가장 낮고, 10 이하 소규모인 경우 4.83점으로 가장 높았다(F value=23.21, p<.001). 실시회기에 따라서는 1회기이거나 4회기 이상인 경우가 2-3회기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다(F value=4.45, p<.05). 이상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가족관계영역의 아버지역할지원사업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영역의 아버지모임사업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개최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로 진행하고, 10명이하의 소규모인원을 대상으로 할 때, 1회기 또는 4회기 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6>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업영역, 참여형태, 진행시간, 참가인원수, 진행방법, 실시회기, 진행시기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14.933, p<.001), 그 설명력은 17.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진행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영역, 참여형태, 참가인원수, 진행방법, 실시회기, 진행시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표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	Beta	R2	F
(Constant)	4.752	-	.177	14.933***
사업영역 (아버지모임=1)	.070	.167***		
진행시기더미1 (2분기=1)	.022	.050		
진행시기더미2 (3분기=1)	.014	.032		
진행시기더미3 (4분기=1)	.078	.186**		
참여형태 (가족단위=1)	.032	.076*		
참여시간(분)	9.592E-6	.012		
참여인원수(명)	-.001	-.231***		
진행방법더미1 (문화=1)	.052	.127**		
진행방법더미2 (기타=1)	.022	.024		
실시회기더미1 (2-3회기=1)	.010	.021		
실시회기더미2 (4회기이상=1)	.071	.094*		

* p<0.05, ** p<0.01, *** p<0.001

영향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영역은 아버지모임이 아버지역할지원보다 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beta=.167, p<.001$). 진행시기에 따라서는 4분기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beta=.186, p<.01$). 참여단위는 개인보다는 가족단위일 때 더 높고($\beta=.076, p<.05$), 참여인원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beta=-.231, p<.001$). 프로그램 진행방법은 교육 프로그램 형태 보다는 문화프로그램 형태일 때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며($\beta=.127, p<.01$), 실시회기는 4회기 이상으로 진행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beta=.094, p<.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7년 현재 전국 101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중 필수사업으로 지정된 아버지역할지원사업과 아버지모임사업에 주목하여 그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이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다. 특히 아버지상의 변화와 더불어 아버지역할 정체성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아버지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예산의 효과적 사용의 기준이 되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이 실제 아버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17년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진행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필수사업은 가족관계영역의 '아버지역할지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아버지모임'으로 나뉘는데, 두 필수사업의 현황은 센터의 소재지나 진행방법, 참여시간, 인원, 실시회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관계영역의 아버지역할지원사업은 주로 '구' 소재지 센터에서 많이 나타나며, 주로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되며, 2시간에서 8시간이하로 20명 이상 대규모인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2회기 이상 다회기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아버지모임사업은 '시나 '군' 소재지 센터에서 더욱 많이 이루어지며, 문화프로그램이나 기타 정보제공이나 상담, 회의 형태로 운영되며, 2시간이하의 단시간이거나 8시간이상의 종일 프로그램으로 10명이하의 소규모 형태로 단회기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영역의 아버지역할지원사업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영역의 아버지모임사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진행시기나 진행방법, 참여시간, 인원, 실시회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개최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더 높고,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로 진행하고, 10명이하의 소규모인원을 대상으로 할 때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실시회기가 1회기로 끝내거나 4회기 이상으로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셋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영역, 참여형태, 진행시간, 참가인원수, 진행방법, 실

사회기, 진행시기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설명력이 17.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진행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사업영역, 참여형태, 참가인원수, 진행방법, 실시회기, 진행시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사업영역은 아버지모임이 아버지역할지원보다 만족도가 높고, 진행시기에 따라서는 4분기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참여단위가 개인보다는 가족단위일 때 만족도가 더 높고, 참여인원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방법이 교육프로그램 형태 보다는 문화프로그램 형태일 때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실시회기는 4회기 이상 다회기로 진행할 때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적 연구방법으로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요구를 분석한 이현아 외(2017)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어, 전국단위의 양적 자료를 통해서도 아버지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현아 외(2017)의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FGI면접을 시행한 것으로 아버지역할의 고민 속에서 아버지의 정체성 확립하고 아버지들의 힐링을 위한 아버지 자조모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 또는 '따로 또 같이' 방식을 요구하고, 일방적 주입식 교육보다는 참여자가 직접 소통하고 체험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아버지프로그램의 상시화와 지역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주기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가족관계교육 중심의 아버지역할지원 사업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아버지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진행 방식도 교육보다는 문화프로그램 형태로, 또 개인보다는 가족단위로,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4회기이상 다회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 연구인 이현아 외(2017)의 연구결과를 전국

적인 양적 자료로 입증한 셈이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공적인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최근 센터 통합을 통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이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시도된 적은 없었다. 매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관리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프로그램 진행결과가 보고되어 연간실적보고서가 발간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참여인원 추이와 평균만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제시한 바, 전국적으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특성별 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요자 관점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국 센터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참여 실적과 만족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아버지대상 사업은 전국단위로 보급되어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결과의 활용도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수사업인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크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중 필수사업으로 지정된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자료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는 필수사업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프로그램 만족도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요와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직접적인 효과성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특정 프로그램별 성과나 내용 분석 뿐 아니라 참여 아버지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만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연구는 민간부분에서의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다면, 그 차별성에 근거한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기정·이윤정(2010). 다문화가족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89-101.
- 2) 권기남(2014). 아버지의 e-Learning 기반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유아의 행복감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2), 5-24.
- 3) 권혜진(2013). 아버지교육 참여자 경험을 통해 살펴본 아버지교육의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461-488.
- 4) 김길숙(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73-292.
- 5) 김성은(2017).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75-100.
- 6) 김정희(1999). 유아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51-292.
- 7) 김진희·정희연(2005). 아버지 역할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11-27.
- 8) 김혜경(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연구의 동향 분석. 아동과 권리, 18(3), 331-366.
- 9) 김혜영·황정미·선보영·김동기(2008). 남성의 부정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박필레·김성길(2014).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제안, 미래교육연구, 4(2), 1-14.
- 11) 서은주(2012).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고찰, 부모교육연구 9(2), 35-51.
- 12) 손순복(2016). 영유아 아버지의 아버지역할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197-220
- 13) 송혜림(2012). 남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18.
- 14) 송혜림·박정윤·고선강·권혜진·김유경·진미정(2010). 남성대상 가족친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15) 송혜림·이정희(2014). 아버지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37-54
- 16) 양소남(2013). 아버지의 부정경험: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긴장과 갈등, 디지털정책연구 11(2), 375-383.
- 17)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 18) 이재림·김지애·차동혁·이향희(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27-47.
- 19) 이정주·이종연(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5(2), 943-967.
- 20) 이현아·박철·김선미(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8.
- 21) 조경란·함경애·천성문(2012).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0(2),

- 369-395.
- 22) 홍길희·황정혜(2006).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 아동학회지, 27(3) 301-317.
 - 23) 홍길희 · 황정혜(2007). 아버지됨(fathering) 향상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11(2), 5-24.
 - 24)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25)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26) 여성가족부(2015).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 보고서, 여성가족부.
 - 27)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28) 여성가족부(2017). 2017년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29) 고용노동부(2017). 2017 Statistics of the Korean Labor Market, 고용노동부.
 - 30) 중앙일보(2018.3.8.). 직장 선택 조건 1위는 '워라벨'...문제는 '야근', <http://news.joins.com/article/22423418>
 - 31)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2018년 상반기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실적 리포트. https://www.familynet.or.kr/reference/general/list.do?bd_seq=12523
 - 32) Bronte-Tinkew, J., Burkhauser, M., & Metz, A. (2012). Elements of promising practices in fatherhood programs: Evidence-based research findings on interventions for fathers. *Fathering*, 10(1), 6-30.
 - 33) Brott, A. A. (2005). *Fathering Your Toddler, A Dad's Guide to the Second and Third Years*. Abbeville Press Publishers: NY, London.
 - 34) Brott, A. A. (2007). *Fathering Your School-Age Child, A Dad's Guide to the Wonder Years: 3 to 9*. Abbeville Press Publishers: NY, London.
 - 35) Fagan, J., & Kaufman, R. (2015). Reflections on theory and outcome measures for fatherhood program.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6(2), 133-140.
 - 36) Holmes, E., Galovan, A., Yoshida, K., & Hawkins, A. (2010).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 fathering programs: Are family life educators interested in fathers? *Family Relations*, 59, 240-252.
 - 37) Lamb, M. E. (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Michael E. Lamb, John Wiley & Sons.
 - 38) Parke, R. D.(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43-58.

- 투 고 일 : 2018년 06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7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8월 28일